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국에 선거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8일에는 한국과총 주최로 대선후보와 과학기술 정책을 토론하는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 포럼은 과거 대선후보들을 초청, 일방적으로 정책을 들었던 것과 달리 대선주자와 과학기술계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모임이다.

李壽昌 한나라당 후보가 첫번째로 초청된 이날 포럼에는 7백 50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모여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李후보는 이 자리에서 “10년 안에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천명하고 GDP대비 과학기술 투자 3% 달성, 기초과학의 투자, 대덕의 ‘과학특구’ 지정 등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분야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과학특보’ 신설,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 과학자의 처우개선과 등용 등 문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 포럼의 토론이 대통령후보의 과학기술관을 검증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자들은 대통령후보의 과학기술 자질에 대한 검증과는 거리가 먼 질문과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은 대부분

과학기술계의 애로 또는 요구사항을 말하고 후보에게는 단답형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지도자의 과학기술관을 평가하는 데 크게 모자랐다는 평가들이다. 과총은 이번 李후보에 이어 다른 후보들도 초청해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포럼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로사항 개선보다는 지도자의 과학기술관을 검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앞으로도 이 포럼과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국가와 사회에 전달해서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계는 흔히 ‘모래알 집안’으로 불리운다. 과학기술계 인력은 산업계를 합쳐 5백만명으로 셈하지만 과학기술을 작업으로 하는 연구인력은 20만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처럼 과학기술계의 인적 구성은 다른 분야에 비

해 크기가 작지만 서로 물고 헬뜬 등 집안싸움이 심하니 모래알이라는 별명이 어울린

다는 생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향력도 적고 반목이 심하다 보니 정치나 사회로부터 홀대를 받기 십상인 실정이다. 이번 대선부터라도 과학기술계가 뚝뚝 뭉쳐 과학기술계의

파이를 키우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서 과학기술이 국가정책에 우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후보 토론】

관심도 높은 「대선후보 과학기술정책 포럼」  
‘과학자질’ 검증 등으로 정치에 반영해야



그러나 이 포럼은 대통령후보들이 과학기술자와 직접 만나 과학기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 왔던 과학기술계가 정치를 끌어들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2002 노벨 과학상 발표에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올해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와 화학상 두 분야에 걸

쳐 수상자를 냈다. 물리 부문에서 뉴트리노 측정에 공헌한 고시바 마

사토시(小紫昌俊)교수, 화학부에서 단백질 질량 측정에 새 방법을 발견한 시마즈제작소 생명과학연구부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씨가 각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본은 이로써 노벨 수상자 9명을 배출한 10대 노벨상 수상국이 됐다.

특히 올해 일본이 화제의 도마에 오른 것은 교수도 박사도 아닌 평 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때문이다. 고이치씨는 교수 아니면 박사들의 전 유물이었던 노벨상을 최초로 수상한 학사 연구원이다. 그는 28세 때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소프트 레이저 탈착법이란 3차원 단백질 질량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로 영광을 차지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 발표 직후 이사 승진, 스

카우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자신의 연구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등 연구자다운 자세를 보여 일본 사회에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일본의 노벨상 해프닝에서 한국 과학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고이치씨가 보여 준 것처럼 과학자의 연구정신이다.

그는 일찍이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은 논문을 발표하고도 중소기업의 연

은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실이 외국에 비해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감투바람이 일 때면 한창 연구성과를 내야 하는 두뇌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영광을 차지하고도 연구실을 고수하겠다는 고이치씨의 연구정신을 보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두번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과학을 경제발전의 도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은 과학을 경제의 한 요소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초는 외면하고 응용에 치우쳐

온 것이다. 응용연구마저도 기술은 외국에서 사들여 올 수 있다는 경제관료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를 연속적으로 배출한 것은 기초연구를 강화한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최근에도 기초연구를 위해 2020년까지 40조엔(약 4천조원)을 퍼붓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국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구에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과학기술계도 정신개혁운동이 일어나 연구정신의 함양 또한 필요하다. ⑰

【신선한 충격 - 평 연구원의 노벨상】

‘연구환경 타령’ 자세 버려야  
‘타산지석’ 日 연구정신

구소에서 그것도 평 연구원으로 연구생활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는 수상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연구 분위기가 깨질지 모른다고 걱정을 했을 정도이다. 그에 대해 대기업 등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자신은 연구실을 떠나지 않을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 과학자들의 연구자세는 걸핏하면 연구비 타령이나 연구시설 탓이나 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는 전혀 딴 세상이다. 낮은 연구성과가 문제가 되면 나쁜 연구환경이나 적은 연구비 탓이나 하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다. 뒤떨어진 과학기술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해야 되는 데도 밤에 불을 밝히

姜信龜 (한서대 교수)